

투데이 칼럼

‘뜻을 모르는 낱말’

모두가 안다. 어휘가 풍부할 수록 표현이 풍부해진다는 것. 그런데 단순히 가지고 있는 낱말의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이는 낱말이 많다는 건 생각과 감정을 더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가장 알맞은 낱말을 고르는 게 수월하다는 뜻이다. 이 수월성은 노력의 대가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섬세하게 세분화 하고 들여다 볼 수록 그 각각의 결마다 최적의 낱말이 필요해진다. 그런 욕구가 늘어날 수록 일상에서 오가는 낱말들의 수집은 물론, 다른 자리에 있던 낱말들까지 담겨가며 의미의 쓰임을 늘려서 결국 어휘가 풍부해진다.

어휘가 풍부하다는 건 생각과 감정의 광활한 분화를 계속 추적하여 표현의 영토를 넓힌 노력의 결과다. 대화 중에 ‘아 이 말이 딱 맞는 느낌이 아닌데...’ 하며 더 나은 표현을 찾는 게 별 것 아닌 거 같아도 생각보다 힘이 드는 일이다.

알맞은 낱말을 찾는다는 건 자신이 뾰족하게 느낀 개념과 주제, 상황과 맥락, 자신의 위치와 듣는 이와외의 관계 등 수 많은 것들을 따지는 일이다. 그런 반복을 통해서 의미비슷한 의미를 가진 낱말들 중에 좀 더 명확한 낱말을 꼭 잡을 수 있고, 같은 낱말이라도 느낌을



박보경 칼럼리스트

달리 해 다양한 의미를 전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휘가 풍부하다는 건 외우기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또는 낱말은 잘 모르는 전문용어 따위를 많이 안다는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기 안의 생각과 감정의 갈래를 항상 눈여겨 보고 사고를 기울리 하지 않아서 표현거리가 무수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 학력이나 학벌 또는 직업만이 어휘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단 그 사람의 평소 사고의 깊이가 어휘에 영향을 미친다. 진짜 지적능력은 어휘의 사용에서 판가를 받는다.

표현이 ‘진부하다’는 건 평소 이 노력을 덜 해서 말천이 적다는 뜻이다. 표현이 ‘정확치 않다’는 건 생각을 세분화 하지 않아서 비슷한 낱말들 사이의 차이를 모른다는 뜻이다.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건

생각이 깊지 않아서 개념의 구분이 안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기모 뜻’을 모르는 낱말을 쓰는 것 은, 말의 내용에 담긴 목적과 본인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때 일어난다. 말을 단순한 도구로 쓰는 경우다. 한낱 도구이니 낱말의 세세한 부분들에 이어진 사고까지는 뜻을 몰라도 되는 것이다. 말은 말 대로 가고 자신의 생각은 생각 대로 따로 가면, 자신이 미처 생각해 보지 않은 개념들에 어울리지 않는 아무 낱말이나 마구잡이로 가져다 쓴다. 한마디로 말의 내용에 관심이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서 쓰던 ‘날참’이라는 말을 써서 논란이다. 날참 참녀단이라는 뜻이란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특정 지지 집단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려 쓰는

낱말을, 제1야당의 원내 대표가 공공장소에서 대중을 상대로 쓰고서는 나중엔야 뜻을 미처 몰랐다고 해명했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 사고의 광활한 여행을 떠나본 사람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의 목적에 맞지 않는 낱말을 절대 쓰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현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천명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독재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무엇인지, 민주주의에서 인권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권을 위해서 왜 차별과 혐오를 하면 안되는지, 차별과 혐오의 표현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소 꾸준히 고민해 왔다면 그 정반대에 있는 낱말을 쓸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감각하게 그냥 썼다. 민주주의와 반독재에 관해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하는 말의 내용과 목적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 다. 그건, 자신이 목적이 있는 바가 자신이 하는 정의로운 발언과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뜻이다.

나는 뜻을 모르고 썼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해명을 믿는다.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의 내용과 목적에 관심이 없었다고 규정하면 앞뒤가 맞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알겠.

사설
군산 GM공장 MS 컨소시엄에 매각

군산에 변화가 일고 있어 기대가 크다. GM공장이 MS컨소시엄에 최종 매각된다는 소식과 함께 미래 청사진이 화려하게 발표된 것이다. 전기 자동차 생산을 위해 초기 시설에 2천억원을 투자, 9백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2025년까지 15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구상이다.옛것에 전북도가 군산 지역 긴급 지원 마련을 위해 군산시와 함께 신용보증재단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함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산이 전기자동차 생산 중심지가 되면 예산과 같은 분위기가 살라나리라는 기대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일이고 계획사항일 뿐이다.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뿐이 아니다. 전북도는 지난날 군산 살리기에 사활을 걸겠다고 여러 번 말했으므로 그말에 책임을 지고 힘차게 나가야 한다. 그동안 말을 먼저 앞세워 미덥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뭔가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작업이 있어야겠다. 여기 다시 지적하니 군산 경제가 몰락한 게 최근의 일이 아니고 오래된 일인데도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면 안타까울 뿐이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이들이 그동안 제외되었다는 저변의 보도가 다시 생각나는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 다시 살리기에 힘을 다해야 한다. 전북도가 내놓은 밝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산 경제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편성한 군산 지원 예산총액은 1조9650억 원인데 퇴직자들을 위한 재취업이나 재취업 교육에 투자한 액수는 221억 원에 그쳤더니 말이 안된다. 전체 액수의 겨우 1.1%에 해당되는 것이라 코끼리 비스킷이 아닐 수 없다고 본보는 지적했는데 그것은 지금 풀어야 할 과제를 가 정부가 말했던 군산형 일자리는 아직도 안개속이다.

전북도는 이제 MS컨소시엄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 계획한 대로 일이 진척되게 하려면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그동안 전북도가 군산을 안타까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볼 수가 없다. 전북도는 옛것처럼 채 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그것을 반드시 실천함과 동시에 MS컨소시엄이 전기자동차를 제 시기에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도내 영세기업들에 관심과 지원을

전북도가 영세 기업들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동안 기업들로부터 이런저런 호소가 있었으니 말이다. 전북도가 앞으로 어떤 지원을 보여줄지 지켜보고 있다. 기업이 잘 나가야 경제도 나가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우선 도내 기업들의 생존률이 어떤지 파악해야겠다. 지난 십 수년 간 전국 최하위라는 보고가 계속됐는데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아직도 볼 수가 없으니 말이다. 군산 경제의 몰락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북도가 중심을 잡고 일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급한 현안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당부는 저번에도 했던 바이다. 도내 기업들의 생존률 통계 보고를 보면 그동안 영세기업들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가 있다.

전북도는 지역의 영세 기업들을 염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중소기업들 쪽에서도 밝은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요즘이다. 그동안 중소 영세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 그럴 터이다. 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흐름이 어려울수록 기업들의 형편을 살려야 한다. 늘 그랬거니와 돈이 풀지 않는 전북 경제는 정체된 상태이다. 전북도가 군산 살리기를 주요 현안으로 보고 있어서 하는 말인데 그쪽 하도급 업체 등 영세기업들의 형편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전북도는 지원으로 기업 생존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소기업들도 지역 경제를 받쳐주는데 그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도내 중소기업들과 영세기업들이 그동안 애써 일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전처럼 인센티브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내 영세 기업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전북도는 도내 영세 기업들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독자제언

안전속도 5030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는 다른 나라 보행자 교통사고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 통계를 보면 평균 1.1명꼴로 사망한다. 우리나라는 3.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다른 나라의 3배나 된다.

순위가 높은 다른 나라들을 보면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크게 보았다고 한다.

덴마크의 경우 교통사망사고가 24% 감소하였고, 후자의 경우도 18%나 감소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일 예정이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보면 대부분 91.6% 도심에서 발생하고 있다.

도심부에서는 제한속도를 50km/h로 조정하고, 주택가나 스쿨존 등 보행자 보호구역 위주 도로에서는 30km/h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속도를 10km/h만 줄여도 차량 제동거리가 25%가 줄어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이 30%나 감소한다고 한다. 안전속도 5030을 시범운영한 부산 영도구에 경우 17년 6월부터 18년 8월까지 교통사망사고가 24.2% 감소했다.

2022년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니 잊지 말고 5030을 기억하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이듯, 안전속도 규정을 준수하며 교통사고가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민지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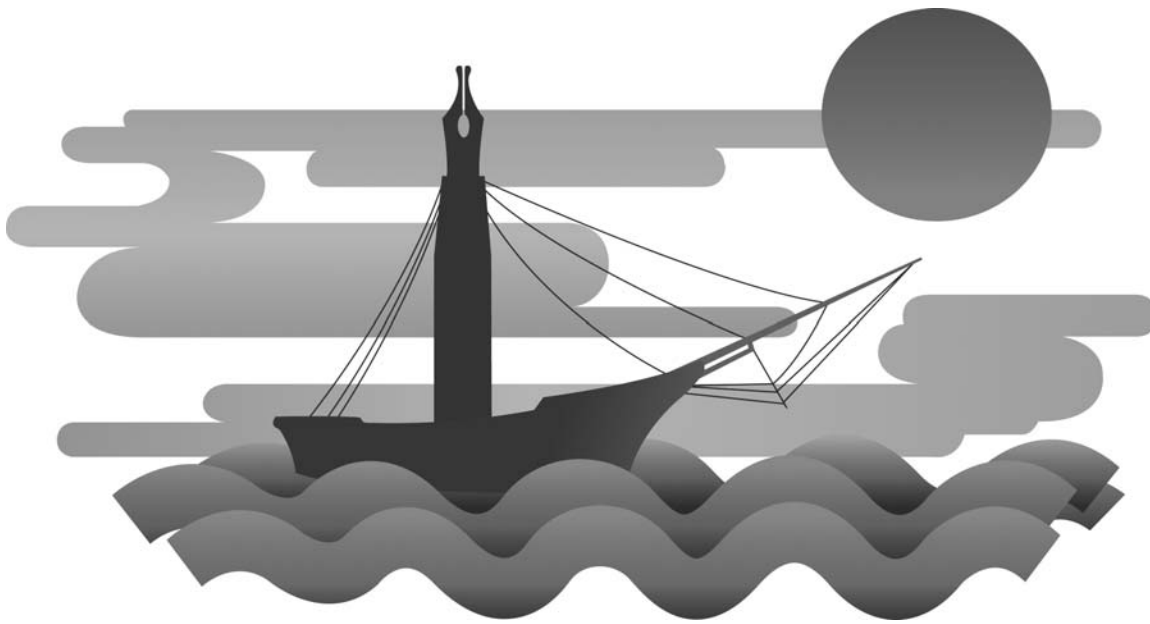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교육은 소비 아닌 확실한 투자”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공립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금의 대폭 삭감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열려 학생들이 공사장 콘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다. 시위대는 정부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국공립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18억 5000달러(2조 2024억 원) 삭감한 데 대해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